

# '책의 바다'에 은빛 물고기들 뛰논다

조기·대구·연어·은어 등 물고기의 생태와 삶 다룬 인문학서 넘쳐

'책의 바다'에 은빛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다.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는 지느러미로 강과 바다를 떠돌던 조기·대구·연어·은어·칭어·홍어 등이 문자의 대지에 올라 파닥거리고 있다. 특히 역사학·민속학·문학 등 인문학의 투망에 걸린 물고기들이 좌판에 즐비하게 들어차 있다. 이처럼 출판의 심해에서 물고기의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전지구적 의제로 상정되고 있는 생명의 의경과 함께 야생의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다.

## 인문의 그물로 낚아올린 조기와 대구

최근 두 마리의 물고기가 민속학과 역사학의 그물에 걸렸다. 이제는 황해에서 슬픈 울음소리만 토해내는 조기와 '세계를 바꾼 대구'가 그것. 조상 차례상에 오르는 '절 받는 고기'이자 임경업의 신화를 간직한 영물,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이제 침묵의 바다에 깊이 잠겨버린 물고기, 조기. 민속학자 주강현의 《조기에 관한 명상》(한겨레신문사)은 서해를 붉게 물들였던 황금 조기떼들의 역사와 신화에 바치는 슬픈 조사(弔辭)다.

물고기 한 마리가 때로는 세계의 지형도를 바꾸기도 한다. 마크 쿨란스키의 《세계를 바꾼 어느 물고기의 역사》(미래M&B)는 대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의 전쟁과 혁명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대구 때문에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연어와 함께 여행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움베르토 에코는 스톡홀름 여행에서 연어 한 마리를 샀다. 호텔의 냉장고에 잘 넣어 보관했지만 외출에서 돌아와보면 번번이 연어는 식탁 위에 드러누워 있었다. 컴퓨터 조작에 미숙한 인간들 때문에 결국 에코는 씹어가는 연어와 함께 막대한 액수의 계산서를 받아야 했다. 《연어와 여행하는 방법》(열린책들)에 실린 이 에피소드는 첨단문명에 휘둘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다.

물과 물고기는 문학적 상상력의 보고였다. 그것은 날것의 생명력과 시원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의 문학적 은유로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났다. 특히 '모천회귀(母川回歸)'의 습성을 가진 은어와 연어는 소설에

책의 바다에 은빛 물고기들이 뛰논다. 인문학의 투망에 걸린 물고기들이 좌판에 즐비하다. 출판의 심해에서 물고기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전지구적 의제로 상정되는 생명의 의경과 야생의 상상력과 관련돼 있다.



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고기다.

은어는 원재훈·윤대녕·윤일권의 소설에서 시원으로의 회귀와 생명의 위기를 알리는 제재다. 원재훈의 《만남, 은어와 보낸 하루》(생각의나무)는 은어로 만나 사랑했던 한 남녀가 다시 만나 전생에서 은어로서의 삶의 여정을 돌이키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은어는 전생과 현생을 잇는 고리면서 내면 성숙의 상징이다.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문학동네)에서 은어는 존재의 시원으로 거슬러오르는 회유의 여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느덧 거슬러 오르고 있다. 우리의 경과가 시작된 곳으로, 부활하기 위해, 지금 수만의 은어떼들이 나와 함께 강물로 거슬러오르고 있다"((은어))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고기는 생명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생명의 살림보다는 죽음에 능란하다. 윤일권의 《은어의 강》(새로운사람들)은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로 지정된 구남리라는 공동체의 해체과정을 통해 생명 파괴의 실상을 고발한다.

연어는 산란하기 위해 심해에서 하천으로 거슬러오른다. 산란을 마치면 영혼 없는 몸이 되어 물 위로 떠오른다. 안도현의 《연어》(문학동네)에서 연어의 일생은 곧 죽음을 통한 삶의 완성이다. 우리는 연어의 죽음을 통해 희망의 미학을 읽는다.

## 인간의 삶을 떠도는 물고기

물고기는 한곳에 머무는 법이 없다. 끊임 없이 꼬리와 지느러미를 움직여 어딘가로 떠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리라. 그러기에

물고기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여로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때로는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 때로는 순결한 자아와 만나기 위해 떠나기도 한다.

박경철의 소설집 《빙어가 올라오는 계절》(민음사)의 표제작에서 주인공은 '고장난 생체시계'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빙어잡이를 떠난다. 서정인의 《붕어》(세계사)에 등장하는, 오염된 강가에서 죽어가는 붕어는 생명과 생활이 무참하게 훼손당하는 현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김주영의 《홍어》(문이당)에서 부엌 문설주에 걸린 홍어 한 마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구뎀한 삶을 견디는 질긴 생명력을 암시한다.

"한때 넉넉한 바다를 익명으로 떠돌 적에 아직 그것은 등이 푸른 자유였다."(정종목 <생선>) 그러나 어떤 세대에게 그 '푸른 자유'는 때로 아픈 상처로 기억되기도 한다. 공지영의 《고등어》(웅진출판)에서 고등어는 80년대라는 아픈 시대를 헤엄쳤던 젊은이들의 좌절과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어른들은 때로 깊은 밤에 청어를 구워서 하나하나 가시를 발라낸다. 삶의 쓰라림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다. 박구홍의 《어른들은 청어를 굶는다》(푸른숲)에서 청어는 어른들의 고독을 환기시키는 가시 많은 생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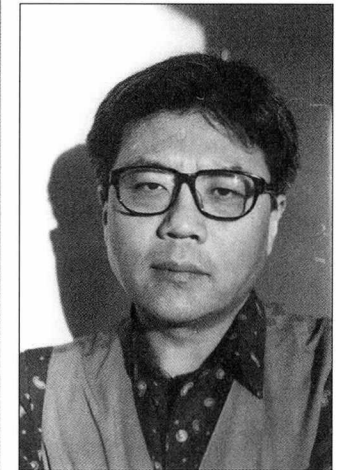
이처럼 인문학의 황금어장에서 건져올린 어획량이 아직 풍부한 편은 아니다. 비릿한 바다로 우리를 이끌 더 많은 물고기를 기다려본다.

— 박천홍 기자

인터뷰

## 황금조기에게 바치는 헌사

《조기에 관한 명상》 펴낸 주강현씨



'우리문화 지킴이' 주강현씨(43)가 '인문의 바다'에서 황금조기의 슬픈 연대기를 건져올렸다. 남쪽 흑산도에서 북쪽 가도까지 황해 50여섬을 발품삼아 누빈 기록을 모아 《조기에 관한 명상》(한겨레신문사)을 펴낸 것이다. 그는 왜 황해와 조기를 찾았을까.

"서해안 천수만은 제 민속학 답사의 첫 필드였습니다. 시화호 간척지가 완공되기 전이었지요. 더구나 대륙을 사이에 둔 서해안은 문명의 교류지였습니다. 그 문명의 주인공은 바로 황금조기이자 민중들이었습니다."

조기는 서해안에서 '파시'라는 문명권을 형성시켰다. 또한 민중의 영웅 임경업은 바로 조기의 신이었다. 역사와 신화, 문명의 심해에 조기가 놓여 있었던 것. 조기떼를 찾아 떠난 첫 목적지는 바로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탄생시킨 흑산도로 이는 곧 실학파의 실사구시 정신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섬은 문학적 에스프리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인간의 경박함을 용납하지 않는 풍랑의 엄숙함이 지배하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장중한 울음을 터뜨렸던 조기는 황해의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의 조기와 함께 하는 여행은 장산곶을 지척에 둔 연평도에서 멈춘다. 민족의 허리를 끊는 북방한계선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기와 함께 북쪽으로 떼지어 물러갈 날을 기다린다. 단순한 책상물림이 아닌 통일지향적 헤게모니의 '문화권력'으로서 '인문의 바다'를 향해하겠다는 그의 당찬 꿈은 이 책을 시발점으로 한 '황해 3부작'으로 영글 것이다. (박천홍)